

# 그림에 눈먼 평범한 남자의 사랑이야기



미술품 경매장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달리 낯선 공간이다. 정신적, 물질적 여유, 예술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술품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옥션의 CEO 김순웅씨(49)는 이 편견을 버리라고 말한다. 미술 전공자, 전문인도 아니었지만 그림은 '특정인을 위한 것도, 결코 비싼 물건도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작품의 혼을 삶의 위안과 치유법으로 사용한 그만의 경험이 녹아있다. 그가 펴낸 《한 남자의 그림사랑》은 이러한 경험과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술에세이다. 그는 책의 전반부에서 10여 가구도 되지 않는 충청도 산골에서 지내왔던 어린 시절과 23년간 은행의 평범한 월급쟁이로 지내다 우리나라

유일의 미술품 경매 회사(서울옥션)의 CEO가 된 과정들을 하나씩 되새긴다.

“저는 본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영을 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림과 책, 음악을 만나죠.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을 우선으로 치거든요. 부와 명예가 뒤따르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2000년 3월 그가 23년 동안 근무하던 하나은행을 나와 경매전문회사에 들어간 이유도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은행업무를 먹고 사는 일 이상으로 즐거워했으면 직장을 옮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은 폭력적인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 가난, 나약한 몸, 시골 출신으로서 서울에 올라와서 겪었던 자괴감 등 남모를 상처를 가진 그에게 ‘행복’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제 배경은 예술적인 분위기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플란다스의 개》를 보면 네로가 죽어가는 절망 속에서도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림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림을 열심히 만나기 시작했죠. 저같은 사람이 그림에 도달한 과정을 보고 다른 분들도 그 ‘어렵다’는 그림을 가깝게 만나고 삶의 평안과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오운 씨의 <춤>이 걸려 있다. 그는 한 맺힌 듯 두 팔을 들고 춤을 추는 여인의 모습에서 민중의 애환이 묻어난다고 말한다. 한쪽에는 배병우, 구본창 씨의 진품 사진도 있다. 그는 작품을 열심히 접하다 보면 취향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그의 시선은 르누아르의 그림처럼 밝고 화사한 작품보다는 어둡고 무겁지만 힘이 느껴지는 그림에 오래 머문다.

“사람들은 사치스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림 모으는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고희, 박수근 같은 화가들을 죽인 건 모두 가난이었죠. 저는 그림에 값을 매기는 것을 무조건 속물적인 행위라고 보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박수근에게 돈 걱정 없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유산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책 후반부에서 언급했던 경매 시장, 미술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 놓으며 애정어린 비판도 아끼지 않는다.



《한 남자의 그림사랑》 김순응 지음 | 생각출판사 | 268쪽 | 19,800원

“미술하면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30만 원 이하의 좋은 작품도 있습니다. 좋은 그림을 소유하는 기쁨은 명품 옷을 갖는 기쁨에 비할 수 없죠. 지레 겁먹지 말고 미술에 다가가고 그 기쁨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가 20여 명의 직원들과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작품, 화가, 그리고 관객들을 보호하는 행위다. 금융기관의 조직적인 생활패턴에 익숙해 있던 그는 개성과 창의력으로 무장된 미술 전문가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한다.

“일반교양만 갖고는 안 되니까 미술 책과 해외정보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술을 상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선진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참고해야 하는데 실제로 서울옥션의 경우에는 크리스티나 소더비 등의 해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 미술시장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그림은 좋아하면서도 그림 소유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가격에 대한 신뢰부족 때문입니다. 이 증가격체 때문에 100만 원짜리 그림이 어디에서는 30만 원에 팔리기도 하거든요.” 그는 작가들도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미술품 경매의 신뢰도를 쌓는 일은 화가, 미술시장, 소비자 그리고 전문화상들 모두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그림을 편하게 사고파는 하부구조가 없어요. 특히 유통구조가 다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편이죠.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도 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 장소도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하부구조가 갖춰져야 그림을 사고파는 사람이 안전하게 거래를 하죠. 이것은 불황이나 경기 문제가 한국 미술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예술과 돈은 결코 상극이 아니라고 말한다. 화가도 돈벌이를 해야 하고 돈을 이 사회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미술품 경매가 공개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순응 씨는 그의 책에서 질곡 많은 삶을 차분하게 회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격앙된 어조를 택한다. 그래서 《한 남자의 그림사랑》은 삶의 다채로운 장면들이 녹아들어간 또 하나의 그림이나 다름없다. 그는 그림과 눈을 마주쳤던 기억, 그리고 미술현장에 있으면서 던지는 제안들까지 미술을 둘러싼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다. 이 애정은 미술, 문학, 음악 등 모든 예술 분야로 확장된다.

“일주일에 많으면 3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김훈 선생의 글을 가장 좋아하는데 칼처럼 날카로우면서 따뜻한 문체가 감동을 주죠. 사상이나 의미도 중요하지만 틀이나 형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예술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담고 표현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는 천재적인 화가는 늘 독창적인

화법이나 표현법을 창조하면서 사조를 완성해 나갔다고 설명한다. 그가 오운 씨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민중의 애환을 그것과 어울리는 재료인 나무판을 깎아 표현했기 때문이다.

“좋은 작품, 나쁜 작품을 꼽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에겐 혼, 고뇌, 철학, 인생이 담겨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입니다. 굳이 말하면 남의 것을 베낀 작품이 나쁜 그림일 수 있죠.”

그는 책의 말미에서 왜 그림을 좋아하느냐고 물을 때 “삶을 풍부하게 하고, 정서를 함양하게 해서”라는 대답이 답답스럽다고 밝힌다. 그림에 눈멀어 행복하다는 그에게 그림, 음악은 이미 말로 정의할 수 있는 대상, 그것을 넘어서 있는 존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